

홍삼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

진안 홍삼항산업 심포지엄

진안홍삼연구소(박충범 소장)는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지난 19일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고려인삼 친환경 생산 관리 및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산악초 전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안홍삼연구소와 진안홍삼 향토명품화 사업단이 주관, 국내 인삼 등 특용작물관련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가공업체, 재배농가 및 일반인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김길용 교수는 '선택적 고품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라는 주제로 최근 인삼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작장애 해결을 위한 GCM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상수 사무관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대학교 김수린 교수는 홍삼의 또 다른 가공형태로 인삼의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을 이용한 가공연구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지난 19일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고려인삼 친환경 생산 관리 및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산악초 전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북대학교 김중훈 교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 심혈관 건강에 고려인삼(진안삼)의 영향을 조사하였고 고려인삼 복용그룹에서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이 증가하여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원광대학교 이서운 교수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 학습과 기억력에 미치는 고려인삼(진안삼)의 영향을 조사하였고 고려인삼 복용그룹에서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학습효과가 증진되었으며 기억력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회복되는 정도가 더 큰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진안홍삼연구소 박충범 소장은 "홍삼뿐만 아니라 발효인삼, 흑삼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홍삼연구소가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제7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성료

무주, 영동, 김천 일주 자전거 마라톤 1000명 참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네오플라이가 공동 주관한 제7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가 지난 20일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 경북 김천 일원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그란폰도(130km - 총 라이딩 7시간 30분 예상)와 메디오폰도(70km - 코스 완주방식)로 치러졌으며 1천여 명의 선수들은 오전 7시 무주 등

나무운동장을 출발해 영동과 김천을 돌고 무주에 마련된 결승점을 통과했다.

대회에 참가했던 한 선수는 "해마다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라며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고 무엇보다 코스나 풍광이 자전거 마라톤을 즐기기에 너무 좋아서 기다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와 프로 구분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370여 명이 이날 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진행·유도 요원으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역아동센터와 토마토 수확체험교육

장수군은 지역 행복나눔의 일환으로 토마토 실증시험 스마트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로 지역아동센터에 무료 나눔과 수확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 내 토마토 스마트온실은 2017년 농촌

진흥청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내 토마토 농가의 ICT(환경제어) 기술을 보급하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현장으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재 11개 토마토 신품종의 지역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191명을 대상으로 한 토마토 무료나눔과 수확체험 교육은 공공기관의 지역복지 실현과 지역 아동들에 대하여 과학영농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12월까지 매주 월, 목요일 시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2회 무주 천마축제 성료

주민화합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

제12회 무주 천마축제가 지난 20일 무주군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성면농악대의 길놀이로 시작을 막을 올린 천마축제에는 운여일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최식과 지역동아리 문화예술공연, 화합행사,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면주민자치센터 더 강광호 주무관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강창수(54, 장거리 시장)씨가 천마작품전에서 주는 공로패를, 김석배(44, 안성면 환경미화원)씨는 감사패를, 강수복(55, 안성면 죽전리)씨는 기념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운여일 부군수는 "안성이 자랑하는 특산물이자 우리 군 효자작품인 천마가 축제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주민여러분의 화합과 지역발

전을 더불어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 천마축제는 지역의 특산물인 천마를 홍보 판매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세프 초청 천마요리 시연을 비롯해 천마음식 먹거리장터, 품평·시연회, 천마주 시음 및 달고기 체험, 생 천마 전시 및 판매, 천마제품 전시 및 천마잡 시음, 천마재배 모포장 재현 행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안성면 이기수 면장은 "주민이 하나 돼 지역을 일구고 천마의 고장 안성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충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언제 와도 좋고, 살아보니 더 좋은 안성을 만들고 명성을 뽐내자는 천마가 생산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2회 무주 천마축제가 지난 20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진안군, 체조발표회·마이산건강걷기대회 열려

'즐거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청춘!' 2018 진안홍삼축제 2일째인 지난 19일 마이산북부 마이몬테마공원 주무대에서는 건강체조 발표회와 마이산 건강걷기대회가 열렸다.

축제기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도시 진안을 널리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모여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건강체조 발표회는 그동안 운영해온 30개의 신바람건강체조 마을 중 12개 팀이 일일 동안 갖고 댄스 실력을 선보였다.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가 참여

한 마을부터 부부가 함께 참여한 마을까지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의미 있는 무대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 젊은 관객은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재미있었다"며 "세대를 넘어 전 군민이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사위원장인 최성용 부군수는 "특별로 실력이 우수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참여한 모든 팀이 1등이었다"며 "특별로 특색있는 무대를 꾸며 관객과 심사위원들까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직원 화합·소통 워크숍

장수군은 민선7기 직원 간 화합과 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한 2018년 직원 화합·소통 워크숍을 지난 18일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실시했다. 워크숍은 11월 2일까지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3기로 나누어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동료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진심과 웃음이 함께하는 '긍정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시작으로 팀별로 장수군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한 실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통하는 장수군을 위하여'라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팀워크 향상과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류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신규 직원들에게 선배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공유 및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없던 달려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워크숍이 앞으로 새로운 장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호남의병 창의 111주년 기념 추모제

호남 최초의 의병조직인 호남의병 창의 제111주년 추모제가 지난 19일 마이산 이산묘에서 열렸다.

호남의병 창의 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오귀현)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는 일제에 맞서 항거한 호남의병을 창의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음력 9월 13일 즈음) 개최되고 있다.

1907년 9월 12일 정재 이석용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에서 1,0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여 마이산 주필대에 집결해 일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의병조직 동맹 결성을 결의하고, 전북에서 최초로 의병활동을 시작했다.

호남의병 창의 동맹단은 마이산 용바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조국 광복의 임무완수를 맹세하고 오로지 애국을 이 땅에서 불어내자"고 외쳤다. 정재 이석용 선생이 주도한 동맹단은 봉기 이래 진안읍 교전을 시작으로 1908년 4월까지 장수와 임실, 남원 등지에서 줄기차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알리고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오귀현 호국제전 위원장은 "마이산은 호남 최초로 의병조직이 결성된 곳으로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 선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